

# 대전엑스포와 환경



곽영훈

건축가·도시계획가  
대전엑스포 조직위  
자문위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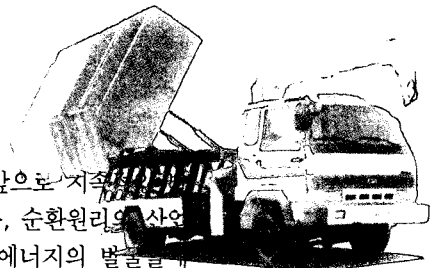
전엑스포 '93의 주제 '새로운 도약에의 길'은 환경우호적인 새로운 산업기술 문화의 방법을 찾기위하여 도전하고 도약하자는 것이며, 이 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두가지 부제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과거의 전통기술을 잊지말고 현대의 첨단과학과 접목시키는 지혜와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재활용하는 절약의 정신과 순환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이미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거나 산업화되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화가 가져오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화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자연과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이미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또한 산업화는 인간의 사회조직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새롭게 발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부정효과를 최소한으로 하는 산업화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전엑스포에서는 이렇게 지구가 병들어 간다는 문제를 네가지 달갑지 않은 4D현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지금까지의 개발은 환경에 공해와 오염으로 해독(Detriment)이 되는 역효과를 자져왔고 자원을 고갈(Depletion)시켰으며, 인간사회질서를 어지럽게(Disruption)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Destroyal)하다시피 했다. 4D의 우려는 인류 모두에게 공통된 것(Common Concern)이며, 세계가 함께 도전(Collective Challenge)하여야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 찾아진다는 것이다. 대전엑스포는 이 4D현상을 제거시켜가면서 새로운 인류발전의 도약을 실질적으로 시도하는 계기이며 그장으로서는 준비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전엑스포는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첫째, 대전엑스포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포함한 모든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도록 의도되었다. 그리고 발전에의 같은 오늘의 과학기술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양립되는 기술과 지혜가 오랜동안 집적된 전통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 대전엑스포의 인식이다.

대전엑스포는 과거로 부터의 배움을 오늘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기술에 연계발전시켜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 속에서 인류 모두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해 나가야 인간적이고 환경우호적인 기술이 더욱 발전될 것이므로 대전엑스포는 이런 교환과 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민족이 세계인류에게 제공하는 국제적 행사인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센터에서  
외부로 쓰레기를 수송하게  
될 쓰레기 분리형차

둘째, 대전엑스포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일회용으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발로 보고 있다. 공해방지 기술, 환경관리 모형, 무공해 제품, 순환원리의 산업 기술, 자원재생, 재활용, 자원절약 기술, 미래의 자원, 신소재, 대체에너지의 발달을 역점을 둘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전통기술, 민속과학, 민속의학 그리고 그것들의 현대 과학과의 접합, 전통사회의 생활지혜를 보존하는 과학기술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재와 과거를 통합하여 새로운 환경기술체계로 계속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공원의 상설화와 국제연구와 개발을 위한 협조기구 발전의 여러 모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계획도 세우고 있다.

셋째, 대전엑스포는 리우의 선언적 의미를 시의적절하게 실현의 의미로 환원시키려는 진지하고도 개방된 시도이다. 1972년 스톡홀름 환경선언이 있는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금세기 최대의 국제회의인 브라질 리우의 지구환경 정상회의는 지구의 온난화의 온갖 공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류와 생물들이 멸종되어가는 극한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경종과 더불어 다시한번 세계가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는 인류적 상황인식의 합의를 극명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엑스포를 통하여 세계 모두가 배우고 지구촌시민(globalism)으로서 환경우호적인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변(localism)에 도입시켜 나가도록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있는 시도라고 믿는다.

넷째, 대전엑스포는 현대 과학기술의 전반적 개관과 그것의 환경적·사회적·인간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고찰은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이 처해있는 위치가 바로 개발의 기초단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발전의 단계 그 완성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의 발전, 그것의 성과와 아울러 문제점을 되돌아 볼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의 상황을 점검하고 새삼스럽게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의 한국인들은 앞으로의 발전이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사회적 단합을 강화하고, 자연 현상과 조화되며, 인간성의 실현을 기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물론 이러한 회고와 반성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서도 중요한 모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체험에서 나온 회고와 반성은 인간적인 의미를 가진 과학기술의 오늘의 모습 전반을 조감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선택가능한 기술의 전 메뉴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전엑스포는 한국이 산업화의 결과로 나름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온정적 인간관계의 상실과 자연 환경 파손의 대가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오랜 전통가치와 정신문화가 세계문명예로의 종합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아무튼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의식 속에서 미래한국을 조감할 때 동서가 모두 참가하는 평화의 제전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88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93 대전엑스포는 국력을 결집시키는 세계적 행사로서 남북 인류 모두가 함께 사는 새길을 앞으로 열어가는데 기여하는 배움의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올림픽과 피스의 합성어로 「올림픽평화운동」을 꽃피웠드시 대전엑스포 사후에도 엑스포를 기념하는 공원으로서는 엑스포와 엑스피리언스의 합성어인 엑스포리언스(EXPORIENCE)라는 별세계를 만들어서 「지구환경운동」의 창조적 에너지가 계속 발휘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엑스포 '93의 주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첫째는 과거의 전통기술을 잊지 말고 현대의 첨단과학과 접목시키는 지혜와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재활용하는 절약의 정신과 순환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